

승대극회 제13회 신입생 환영공연

黑人 修女를 위한  
鎮魂曲



원작 : William Faulkner

희곡 : Albert Camus

기획 : 홍 덕 태

연출 : 박 경 근



극회장 손진용  
(산공87)

푸른 신록을 약속하는 봄을 맞이하여 저희 승대극회에서는 제13회 신입생 환영공연으로 “흑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을 여러분 앞에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한 작품이 올려지기 까지는 숱한 고뇌, 방황, 역경이 있지만 여러분의 성원과 질타가 있기에 저희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습기간동안 썰렁한 무대를 뜨거운 입김으로 녹여준 cast들, 외롭게 독수공방했던 흥기획,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연출형. 이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죄송함이 교차합니다.

끝으로 이 연극이 올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앞길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작가 및 작품연구

이 작품 「한 黑人 修女를 위한 鐮魂曲」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미국의 소설가 W. Faulkner의 소설을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A. Camus가 脚色을 한 작품이다.

속죄할 수 없는 과거를 지난 템플, 그리고 가식으로 과거를 덮어두려 하는 그녀의 남편 고완 스티븐스, 템플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과 육체를 가로채려는 건달 빠타, 또 모든 템플의 고해를 경청하고도 권위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로 양심을 외면해 버리는 주지사 등은, 전형적인 人物들이다. 흑인 낸시 마니고가 누명을 쓰고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을 택했을 때 그 침묵에 대해 진실을 외치는 사람은 오직 가뱅 스티븐스 뿐이다. 「… 문제는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不正과 不義에 있는 것이요 이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실뿐이오. 진실 또는 사랑이랄까!」 그러나 자신의 인척들을 등지고 낸시를 변호한 가뱅의 이 양심적인 중언도 가식으로 점철된 두터운 사회의 부조리 안에서는 낸시의 죽음에 비하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8년전 템플은 남편 고완의 실수로 뾰뻬라는 악당에게 유괴당하여 맴피의 사창가에 갇금당한 일이 있었다. 그후 템플은 명문의 자손 고완과 결혼하여 두아이의 어머니가 되지만, 고완과의 결혼생활은 행복할 수는 없었다. 오직 가식으로서 사랑하고, 보상하는 고완과의 생활은 템플로 하여금 사창가 시절 진실로 사랑했었던 사내, 레드의 동생(빠타)이 접근을 해왔을 때, 빠타를 이용해서 빠타의 속으로 도피를 하게 만든다. 가식이 없는 사내. 비록 일개의 부랑아에 지나지 않는 사내라 할지라도 템플은 위안과 안식을 비로서 얻을수 있었다. 템플이 빠타를 만나기 시작하여 그 남자와 도망갈 기미가 보이자 낸시는 어린이를 불행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죽여 버린다. 변호사이자 고완의 삼촌인 가뱅은 낸시가 아이를 죽이게 된데에는 숨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채고 템플을 설득하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을 고백하도록 한다. 템플의 告白은 낸시의 목숨을 구할 힘은 없지만 적어도 가려졌던 진실을 들어나게 할 수는 있었다.

이 작품은, 이를테면 사마같은 時間의 흐름속에서 한 점의 빛을 발하는 템플과 낸시의 양심을 연극화 한 것이다.

A. Camus는 이 작품을 일컬어 “現代版 悲劇”이라고 했다. 原作은 비록 연극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지만 Camus는 Faulkner를 “진정한 悲劇的 時代의 唯一한 劇作家”라고 부른다. 그는 이 작품에서 古代 悲劇의 테마이자 영원히 現存하는 테마, 即 唯一한 이 세상의 悲劇테마라고 할 수 있는 “운명과 책임사이를 비틀거리며 더듬어가는 눈먼 人間”的 모습을 보는 것이다. 비밀의 베일이 차차 벗겨져 진실이 밝혀지며 진실과 함께 苦痛만이 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오이디푸스王”的 悲劇의 現代版이라 할까? 여기 나오는 人物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엘렉트라”나 “오레스트”를 짓누르던 같은 운명과 대결하고 있다. 人間이 운명과 대결하여 결국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외에는 풀릴길이 없는 悲劇의 世界가 바로 이 작품의 世界인 것이다.

낸시는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감옥과 창녀굴을 수도원의 品格으로 승화시키는 마지막 장면은 苦痛과 屈辱을 通해서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W. Faulkner의 宗教觀을 말해준다. 이러한 종교관이 흑인 修女를 通해 表現된 것은 극단적인 “파라독스”를 最高度로 반영하는 效果를 낳으리라. 그러나 낸시는 여기서 한낱 黑人 女子라기 보다는 차라리 全体人間의 孤獨과 苦痛을 具現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기획의 변



기획 홍 덕 태  
(사학87)

하늘의 별들은 참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까이서 보면 그 별들은 하잘것 없는 존재일지라.  
人間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비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너와 나, 나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소중한 기울인다.  
나의 아름다운 별을 찾기 위해서.....

이 공연이 올려지기까지 뒤에서 수고하신 선배님들.  
연출형님, 그리고 차가운 무대위에서 대사를 내뱉던  
cast들과 전 staff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STAFF



무대감독  
오 정 열 (사학82)



무대장치  
안 선 후 (설유85)



조명  
권 태 수 (경영87)



분장  
최 정 화 (무역86)



의상  
김 수 진 (사학86)



소품  
홍희정 (불문87)



음향  
박 혜 숙 (국문87)



총보  
김 옥 경 (국문88)



진행  
권승희 (불문88)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CHINESE RESTAURANT)

**연래춘**

2F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읍니다.  
•송전대  
승전대학교 앞  
TEL. 812-9108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학사주점

**옛촌**

•송전대  
TEL. 813-6235

중실人의

**상도상회**

•송전대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DEUCSEH HOE**

817-0821

후문 송실대 정문

## 연출의 변



연출 박 경 근  
(전자82)

언제부터인지 「재미」의 정의(?)가 바뀌어 버렸다. 관객의 가려움을 긁어 주어야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그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느긋함 또한 없어졌으며, 사고함은 우리를 피곤으로 이끈다.“흑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 얼마나 관객을 하품나게 할것인가. 정말 이지 하품만이 나온다.

연극작업과 연기자 사이에 연출의 존재는 어떤 것인지? 작품을 대할때마다 함께 공감하며 더불어 느낄 수 있는 방향제시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공연의 다가옴과 한계점의 느낌은 정비례함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어떤 인간로보트를 만들어 낼까.

그저 열심히 해준 연기자들과 스텝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 CAST



템플·스티븐스  
남 재 현(철학88)

“이야기 할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필요한거예요.”

“할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했어요.  
아시겠어요?”



낸시·마니고  
박 준희(사사86)



고원·스티븐스  
박 원상(독문88)

“블라머디, 에스뜨라공,  
포조, 럭키,  
그리고 소년아!  
그래, 이젠  
기다리는거다.—”

“템플!  
그날밤 한사내가  
당신집에  
있었오?”



가방·스티븐스  
안 성문(건축88)



주지사  
손 진용(산공87)

“새로운 각으로  
또 시작해야지”



비단  
이 범준(불문89)

“삶은 곧  
나의 무대……”



두보  
황명식(전기88)

“약간의 신뢰심은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 공연연보

回	年 譜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홍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풀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탐"	
	1923년 7 : 7, 21	전현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계인간" 엘리엇년회 주관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식作 이반기희	전진호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e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聖者的 생활"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제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무엘·베케트作	김양기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날의 삼화" 윤병조作 "당배해독에 괴해서" 인본·체홍作 "황금단지"(로마극) 푸라우터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류엘·베케트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제 유근배 차현재
8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제이시作	차현재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펀터作	한영제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作	고봉인
11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펀터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벨作	차현재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와 사람들" (전5막) A. 까뮈作	정종화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봄" W. Arving作 (신입생 환영)	김홍수
13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14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방화병" Max. Frish作	안홍순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김득남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텔리作	김득남
16	1976년 10 : 25, 26, 27, 28	"憎" 장·클로드·반·이텔리作	김영덕
3	1977년 3 : 16, 17, 18	"출발" 윤대성作 (신입생 환영)	안홍순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쉐퍼作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쉐퍼作	김영덕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쉐퍼作	김영덕

回	年 譜	作 品 名	演 出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정재호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이병국
22	1979년 9 : 29, 10 : 2	"초봄"	오대식作 황정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플라크作 박양진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오세환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뒤렌마트作	황정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명중作 황정순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탁作 (신입생 환영) 이용설
26	1982년 6 : 12, 13	"까리글라" A. 까뮈作	지숙
27	1982년 10 : 7, 8	"섀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황정순
7	1983년 4 : 16, 17	"블랙코메디" 피터데퍼作 (신입생 환영) 흥여석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뒤렌마트作	김영덕
29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作	오정열
8	1984년 3 :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and作 (신입생 환영) 김인보	
30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오세환
31	1984년 10 : 11, 12, 13	"변천소" John Stoltenberg作	이용설
32	1985년 5 : 9, 10, 11	"빈민굴" Maxim Gorky	이용설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하승민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파레스키作	송기범
10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헨릭·입센作 (신입생 환영) 김정은 위성신	
34	1986년 6 : 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쉐퍼作	하승민
35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作	송기범
11	1987년 3 : 12, 13, 14	"더러운 손" J. P. 샤르트로트作 (신입생 환영)	박경근
36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오정열
37	1987년 9 : 10, 11, 12	"오해" A. Camus	박경근
12	1988년 3 : 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作 (신입생 환영) 황금실	
38	1988년 6 : 2, 3, 4	"세번은 끊게 세번은 길게" 이어령作	오정열
39	1988년 10 : 6, 7, 8	"안녕하나? 못나와!" Dario Fo作	송근호